

“고흥우주선 철도 건설 가능성 충분”

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서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 주장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건의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 발전 공약인 고흥우주선 철도 건설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서 제기됐다.

이날 김 교수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고흥 철도건설은 충분한 실현 가능성이 있다. 고흥우주선 철도가 건설되고 단계적으로 확장되면, 고흥-서울 간 이동시간이 현재 약 5시간에서 2시간 50분대로 단축된다. 그리고 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등 주요 권역과의 고속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흥우주선 철도를 기반으로 고흥군의 국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우주 및 드론 산업도 함께 활성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흥군과 대중교통포럼 주관의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 및 철도노선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고흥우주선 철도 건설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기돼 큰 관심을 끌었다.

종합 토론회에는 구정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김중근 GTX-A 처장, 김승일 고흥철도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준식 고흥군 건설과장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경전선 목포-별교-부전역(부산) 구간 중 별교역에서 고흥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확정하고, 지역 여론을 반영해 고흥우주선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도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오늘 토론회가 고흥 철도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9전략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업이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군 승진자·신규 임용자 등

170여명 부패 방지 청렴 교육

보성군이 지난 22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강사를 초청해 ‘마술로 배우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주제로 총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광수 강사는 마술 퍼포먼스를 접목한 창의적 강의 방식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위반 사례, 공직자 행동강령(특히 갑질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철우 군수는 “청렴 실천은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첫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성군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청렴을 군정 핵심 가치로 삼고, 공직 사회 전반에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정기적인 청렴 교육과 함께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청렴 실천 결의대회 ▲부패 방지 청렴 추진단 운영 ▲청렴 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지금 나부터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장미축제 관광객 길거리 홍보

곡성군은 지난 22일 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 읍·면 회원 50여명과 함께 곡성세계장미축제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의식 공유를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회원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나부터 탄소중립 생활실천!’이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내걸고 길거리 홍보활동을 펼쳐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는 이번 축제 부스 운영에서도 친환경 실천을 이어갔다.

행사장 내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대화용기 사용을 적극 활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에게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장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순천에코칼리지 실험과정’ 12명 최종 선발

생태문명 전환 대안교육기관

12월까지 6개월 실험과정 참여

순천시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대안고등교육기관인 ‘순천에코칼리지 실험과정’의 최종 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발 과정에서 심층면접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국내외에서 접수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 16명이 면접에 참여했다. 면접은 30분간 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생태적 전환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천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에 선발된 12명은 19세에서 36세 사이의 젊은 세대로, 순천 지역 3명, 관외 지역 9명이다. 이

들 중에는 대안학교, 해외 교육기관, 연극 및 예술계, 사회운동 현장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닌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중동·미국·인도네시아 등 국제적 활동 경험도 가지고 있다. 최종 선발자들은 내달 10일부터 실험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면접을 통해 생태적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의지를 가진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이들은 순천에코칼리지 실험과정을 통해 생태문명의 전환을 삶과 일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에코칼리지는 생명가치가 중심이 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내년 개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실험과정을 통해 생태문명 전환을 주도할 일꾼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 장애마을 찾아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

광양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지난 22일 진월면 장애마을에서 다양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펼쳤다.

〈사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원 주관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과 광양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치매검사, 인바디 검사 등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불어 아이용, 머리 염색, 안마, 손·발 마사지, 네일아트, 영하 관란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무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키오스크 체험형 교육도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기기를 조작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며, 조작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민들이 전자기기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오지마을 생활 불편 해소해 드립니다”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 본격 추진

구례군이 지난 21일 문척면 토금마을과 중산마을 25가구를 시작으로, 관내 4개 오지마을 100가구의 노후 전기 설비 교체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 동네복지기동대의 협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계층이 많은 오지마을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군은 먼저 대상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각 가구의 전기 설비와 생활 불편 사항을 조사한 후, 노후화되거나 불량한 전기 설비(콘센트, 누전 차단기, 배전함, 전구 등)를 교체하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여름철 전기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여 화재 및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문척면에 거주하는 한 고령 노인의 전기 스위치를 설치해 주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Farm 나누어드림

자원봉사자 모집

Farm 나누어드림이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수확한 농산물 일부를 기부받아 전남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신선식품 제공 및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사업입니다.

신청문의 전남사회복지협의회 T. 061-283-8477

모집대상

농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 (대학교, 기업, 지역주민 등)

동아리 및 대학생 등 (7명 이상)

활동순서

1. 농가 및 봉사자 신청

2. 매칭 및 일정 조율

3. 봉사활동 실시 (활동 전 교육 및 안내사항 전달)

4. 수확물품 기부

참여혜택

활동물품 (장갑, 수건 등) 지원

자원봉사 활동 시 식사 및 간식제공

VMS를 통한 봉사활동 시간관리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이맞은김치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전남광역푸드뱅크